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1 독립만세 시위와 여성운동*

오미일**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선인 사회공간과 근대 교육
- III. 3·11 독립만세 봉기와 2차 시위
- IV. 여성단체 설립과 계몽운동
- V. 맺음말

| 국문초록 |

3·1운동에서 여성들은 시위행렬의 선두에 섰고 격문이나 비밀문서의 인쇄와 배포도 담당했다. 3·1운동에서 조직적 운동주체로서 여성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3월 11일의 부산진 일신여학교 학생 시위이다. 이 글은 부산 경남 3·1운동에서 첫 만세 함성이었고 동심원의 파장과 같이 시위 확산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 인물들의 정확한 인명이나 이력, 출옥 이후 삶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부진한 연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 작업이다.

* 부산시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2018. 10.30.) 발표원고를 수정한 것임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 omil@pusan.ac.kr

3·1운동에 부산진지역 일신여학교와 공립보통학교 여학생들이 조직적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한말부터 선교사, 지역 유지와 婦人會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근대적 여성교육기관의 설립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활발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족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은 평소 반일적 태도와 정서를 지니고 있었고, 그러한 교육 효과는 여성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3·11만세시위로 체포된 이는 약 30명이었는데, 그 중 교사 2명(징역 1년 6개월), 여학생 10명(5개월), 일반 주민 1명(징역 8월)이 옥고를 치렀다.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한 달 간의 휴교 후 등교하자, 다시 인근 주민들과 함께 4월 8일 2차 시위를 전개했다. 경찰에 탐지되어 비록 거사하지는 못했지만, 4월 9일과 10일에도 동래고보, 부산제2상업학교와 함께 시위를 계획했다. 따라서 그동안 일신여학교 만세 운동에 대해 ‘부산경남지역에서 최초’라는 점만 강조해왔으나 2차 시위 실행에 이어 3차, 4차 시위를 계속 시도했다는 점에서 ‘운동의 지속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11독립만세 시위 주도자를 비롯해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지역의 문화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21년 6월 창립된 부산여자청년회의 지역적 기반은 부산진 이었고 인적 기반은 일신여학교였다.

주제어: 3·11 독립만세 시위, 부산진 일신여학교, 여성운동, 養貞塾, 부산여자청년회, 부산중앙여자청년회

I . 머리말

상해에서 발간된 『獨立新聞』 1920년 2월 17일(음력 己未 12월 28일) 자 「부인과 독립운동」이란 기사에서는 “3월 1일 左手에 태극기, 右手에 獨立宣言書로 示威行列의 前頭에 서서 突進하던 一處女는 적의 칼에 兩手を 끈기였다. 이것이 독립운동의 첫 피다. 大韓獨立을 위한 첫 피는 大韓女子에게서 흘렀다. 그로 부터 大韓의 여자는 독립운동의 모든 부

문에 빠짐이 없었다. 秘密文書의 印刷, 謄寫, 配布와 通信의 대부분은 여자의 손으로 되었다”고 보도했다. 3·1운동에서 여성들이 시위행렬의 선두에 섰고, 격문이나 비밀문서의 인쇄와 배포가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언한 것이다.

1919~1920년 독립만세운동에서 조직적 운동주체로서 여성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3월 11일 부산진 일신여학교 학생 시위일 것이다.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의거에 대해서는 대개 ‘경남 3·1운동의 효시였으며 항쟁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고 지역민들의 자주독립 항일의식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¹⁾ 즉 일신여학교의 학생 의거로 경남의 3·1운동의 첫 봉화를 올리게 되고 그 후 경남 각지에서는 독립을 외치는 만세의거가 뒤를 이어 도내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본다.²⁾

그러나 오늘날의 부산지역(광역시) 전체로 보면 장날에 비교적 대규모로 전개된 동래고등보통학교(3.13), 범어사(3.18), 구포(3.29), 기장읍(4.5) 만세 시위를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반면,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시위운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위여서 ‘기타 각처’로 서술함으로써 부산·경남 만세운동의 ‘효시’란 역사적 의의를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³⁾

일신여학교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3·11 시위 주도 인물들에 대한 각 역사서의 서술이 서로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3·11 독립만세시위로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은 학생은 10명인데 11명으로 표기하거나, 혹은 통영 시위를 주도한 일신여학교 졸업생과 4월 8일 시위 주모자를 3·11 시위 주도자로 혼동하여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삼일운동사 하), 1983, 193쪽.

2) 부산경남3·1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釜山慶南三一運動史』, 三一同志會, 1979, 42쪽.

3) 대표적으로 李龍洛 編著, 『三·一運動實錄』, 도서출판 금정, 1994, 600~618쪽을 들 수 있다.

기재한 경우도 꽤 있다.⁴⁾ 뿐만 아니라 시위를 주도한 교사 朴時淵을 朴信淵으로 오기한 경우도 더러 있다.⁵⁾ 더구나 인물들의 이력과 출옥 이후의 활동 및 삶에 대한 추적 조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3·1운동은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서울·평양·의주·원산 등 7개 대도시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하여 주변 지방으로 전파되었다. 경남 도 단위 지역 차원에서 보면 부산부 조선인 사회공간의 핵심 부산진에서 처음

4) 대표적인 예를 들면, 김의환이 집필한 『독립운동사 제3권』(삼일운동사 하), 180쪽과 『釜山慶南三一運動史』, 42쪽에서는 金順伊가 3월 11일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오류이다.

김순이는 일신여학교 졸업 후 통영 대화정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3월 13일 문복속 등과 함께 통영 중앙시장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징역 6월형을 받고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1919년 9월 6일 가출옥했으나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했다(<표 1> 참조, 『독립유공자공훈록』, 『3.1運動時被殺者名簿』(국가기록원 소장, 1953, 73쪽). 최은희, 『祖國을 찾아가자: 1905~1945 韓國女性活動秘話』中卷, 탐구당, 1973, 274쪽).

3·1운동에 대한 正傳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책의 이러한 문제는 전혀 없이 재인용되면서 일신여학교 운동주체에 대한 오류를 재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여성독립운동사』(3·1여성동지회 문화부 편, 1980, 215쪽, 520쪽)와 『여성독립운동사자료총서』(국가기록원, 2016)를 들 수 있다. 『여성독립운동사자료총서』, 27쪽에서는 통영 시위 주도자인 김순이를 3·11시위 참가자로 기재했으며, 또한 3·11 독립만세시위 주도자인 沈順義(只,伊)를 沈義順으로 오기했다.

또한 동래학원관십년지편찬위원회 편, 『八十年誌 1895~1975』(학교법인 동래학원, 1975), 27쪽에서는 3월 11일 시위에 참여한 학생 중 金順伊, 金愛蓮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김애련은 부산진공립보통학교 졸업생으로 4월 8일 좌천동 만세시위 주도자로 징역 6월형을 받았다(『독립유공자공적조서』, 『공훈록』, 『만세할머니 김애련』, 『부산문화』 2권 2호, 1985년 4월, 223~235쪽).

5) 박시연을 朴信淵으로 표기한 연구서나 자료집 혹은 기사가 더러 있다. 『八十年誌』(학교법인동래학원, 27쪽)와 『독립운동사 제8권: 문화투쟁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338쪽)가 대표적이다. 네이버에서 검색되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역시 『八十年誌』에 의거하여 박시연으로 기재되어 있다(『주경애』 항목 참조). 『舊職員一覽』(『八十年誌』, 279쪽)에는 박시연이 1913년 3월부터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박시연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매일신보』 기사나 이명시, 박정수 그리고 동급생 박순천 등 관련자의 인터뷰에서 모두 박시연이라고 증언하므로, 3·11 시위를 주도한 교사는 박시연임에 틀림없다.

박시연은 선교사 멘지스(Miss Belle Menzies, 한국명: 閔之使)가 일신여학교 설립 시 도움을 받은 한국어 선생이며, ‘일신’이란 교명을 제정한 인물이다(임희국, 『모성적 생명의 눈으로 한국장로교회 역사 읽기-여전도회』, 『한국기독교공보』 2013. 9. 27.).

시작하여 동쪽으로 동래 구포 밀양 울산, 서쪽으로 김해 창원 함안 함양 함천 등지 농촌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함안(3.20)과 함천(3.23)의 시위에서 보듯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시위 양상은 매우 극렬했다.⁶⁾ 이렇게 보면 부산진 3·11 독립만세시위는 동심원의 파장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 파장이 확장되면서 너울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부산·경남지역 3·1운동에서 첫 ‘만세’ 합성의 주체였던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민족의식과 반일적 태도의 형성을 기독교 전파 및 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지역적 분위기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후 3·11 만세 시위 및 4월 8일 2차 시위와 이를 주도한 여성들, 그리고 이들의 만세 시위 이후 1920년대 문화계몽운동 참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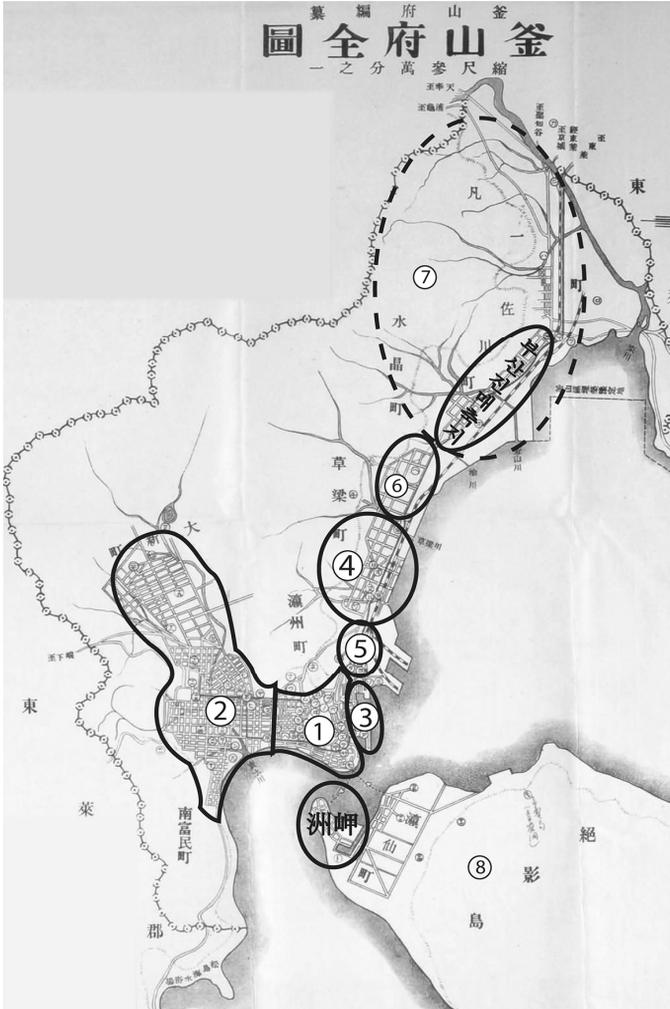
II. 조선인 사회공간과 근대 교육

1. 부산진·좌천동 사회공간과 근대 교육의 전파

1891년 무렵 부산항에 도착하여 1895년까지 선교사업을 전개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William Baird, 한국명: 배위량)는 당시 부산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6) 3월 20일 함안 군북시장 시위에서는 5천여 명의 군중이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자, 일제 군경이 조준사격하여 20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다. 함천에서는 3월 23일 삼가장터에서 13,000여 명의 시위대가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전선을 절단하여 통신을 차단했는데, 일제 군경의 무차별 사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함양에서는 4월 2일 약 3천 명의 군중이 검거에 항의하여 헌병분견소로 돌진했으며 총격에 의해 사망자가 수 명 발생했다(김진호·박이준·박철규, 『국내 3·1운동Ⅱ-남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86쪽, 293~294쪽).

<지도> 식민도시 부산의 공간 생산과정



출처: 오미일, 「식민도시 부산의 주거공간 배치와 산동네의 時空間性」,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소명출판, 2014, 112쪽(김기혁, 『釜山府全圖』(1924), 『釜山古地圖』, 부산지리연구소, 2008을 편집).

비고: ①일본전관거류지 ②서부신시가 ③북빈매죽지 ④초량 ⑤兩山鑿坪新市街 ⑥古館 ⑦수정정·좌천정·범일정 ⑧목도

첫째는 3,500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해안지역, 둘째는 약 3,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초량지역, 셋째는 정확한 거주민 숫자를 알 수 없으나 적어도 3,500~4,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부산진지역이었다.⁷⁾ 여기에서 말하는 해안지역은 일본인들의 전관거류지(오늘날의 북항) 해안을 가리키는 것 같다.

매축과 착평이 어느 정도 진행되던 1903~1909년경 근대 도시 형성과정 시기의 일본인 호구조사에서는 <지도>에서 보듯이, 부산부를 일본 전관거류지/ 西部新市街/ 北濱埋築地/ 牧島/ 洲岬/ 草梁/ 古館 /釜山鎮 등 8개 권역으로 나누었다.⁸⁾ 또한 1912년경에는 일본인 거주지를 舊專管居留地/ 新市街/ 북민매축지/ 兩山鑿平新市街로 분류했으며, 아직 시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町名을 붙이지 않은 조선인 주거공간은 목도 / 초량(제1·2·3구) / 고관/ 부산진으로 구획했다.⁹⁾ 이렇게 볼 때 부산부의 근대적 경관으로의 변화와 관계없이 조선인 사회공간의 중심은 계속 부산진과 초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부산에 발을 디딘 선교사들은 모두 일본전관거류지 밖 조선인 주거공간에 선교의 뿌리를 내리려고 했다. 베어드는 영선현의 땅을 매입하여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는데 이곳은 후일 초량교회의 모체가 되었다.¹¹⁾

7) R.H. Baird,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 1968, cit., 29(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전래사』, 글마당, 2001, 57쪽에서 재인용).

8) 오미일, 「식민도시 부산의 주거공간 배치와 산동네의 時空間性」,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소명출판, 2014, 110~111쪽. 원 자료는 「釜山の社會觀」, 『朝鮮時報』 1910년 9월 25일.

9) 오미일, 앞의 책, 2014, 110~111쪽. 원자료는 森田福太郎, 『釜山要覽』, 부산상업회소, 1912, 44~46쪽.

10) 이는 부산부에서 생활권에 기초한 소규모 지역단체, 예를 들어 1920년경 조선인 구락부로 초량청년구락부, 부산진구락부가 각기 조직된 예를 들 수 있다(『동아일보』 1920. 7. 26. ‘迎春館에서 歡迎會’).

11) 이상규, 앞의 책, 2001, 53~54쪽

같은 시기인 1891년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회의 ‘장로교여전도교회 연합회’ 소속 5명의 선교사가 부산에 도착했다.¹²⁾ 이들은 처음에는 일본전관거류지에서 생활했으나, 1892년 말경 여선교사들은 부산진에 땅과 한옥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1893년 4월경에는 초량지역에 600평의 땅을 매입했다.¹³⁾ 맥카이(Mackay) 목사 부부는 초량에, 여선교사들은 부산진에 거주하면서 초량과 부산진은 호주 선교부의 거점이 되었다. 그러나 1909년 선교지역조정안에 의해 초량지역은 미국 북장로교에 이양되었고 부산진, 즉 오늘날 일신병원, 부산진교회, 구 선교관 등이 있는 좌천동 일대가 호주 선교부의 거점이 되었다.¹⁴⁾

이와 같이 부산진과 초량, 영주동 등 조선인 사회공간은 지리적 여건상 일본인전관거류지로부터 2~5킬로 반경 이내로 인접했고, 또한 외국인 선교사가 적극적인 포교활동지역으로 직접 거주하는 곳이었으므로 근대적 문물과 사상조류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더구나 부산진과 초량은 일본 상인이나 청국, 혹은 구미 상인들과 직접 교역하며 국내외 정세에 밝은 역관과 객주상인들이 지역유지층을 형성하여 일찍부터 개화된 곳이었다.

이러한 지역분위기로 자연히 근대적 교육을 희망하는 사회적 수요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일찍부터 선교사, 일본인, 조선인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근대적 학교가 설립되었다. 각 설립 주체는 교육의 목적과 지향에서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도 달랐다.

먼저 선교사들은 “교회 옆에 학교”라는 개신교의 개척자적 의지를 반영하여 교회를 설립하면 대개 부설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⁵⁾

12) 이상규, 앞의 책, 2001, 61~63쪽. 호주 빅토리아장로교에서 파송한 첫 선교사인 데이비스(Rev. Joseph Henry Davis, 1856~1890)는 1890년 부산에 도착했으나 바로 사망했다(이상규, 앞의 책, 2001, 43~46쪽).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회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장로교여전도교회연합회’를 창립하여 다시 조선에 파견했다.

13) 이상규, 앞의 책, 2001, 64쪽.

14) 이상규, 앞의 책, 2001, 65쪽.

선교사들의 학교 설립은 이미 서울에서 1886년 광혜원, 배재학당을 시작으로 여학교로는 이화학당(1886), 정의여학교(1894년) 등이 설립되었다.

부산지역 최초의 선교학교이자 사립학교는 1895년 1월 베어드가 설립한 부산지역 소년들을 위한 초등학교(School for boys of primary grade)였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기를 원해서 학교 명칭을 ‘한문서당’이라고 했다.¹⁶⁾ 그러나 실제 교과 내용은 한문만 아니라 그가 평양으로 이거한 후 1897년 설립한 숭실학교에서 가르쳤던 성경 그리고 수학, 음악, 체조 등 근대적 내용의 과목도 가르쳤을 것이다.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두 번째로 문을 연 것은 開成學校였다. 1896년 아라나미 헤이지로(荒波平治郎)와 朴琪淙의 발기에 의해 그리고 李乃玉·邊翰敬·裴文華·李命瑞 등이 찬조금(3,060원)을 내어 영주정에 校舎를 마련했다.¹⁷⁾ 아라나미가 교장으로 教授 전반을 담당하였고, 교사의 절반 정도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국권회복을 꾀했던 사립학교와는 교과과정이나 교육목표가 달랐다.¹⁸⁾ 즉 개성학교는 일어학교의 한 유형으로,¹⁹⁾ 이는 1897년 이후 학교 운영비를 한국 정부

- 15)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권수호운동 II』, 국사편찬위원회, 1987, 268쪽. 선교의 방편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신자의 증가로 교회가 설립되면 또한 학교를 설립하여 신자들의 자녀교육과 비신자에 대한 선교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 16) 이상규, 앞의 책, 2001, 57쪽. E. A. Kerr·G. Anderson 공저, 이원호·김성혜 공역, 『호주장로선교회의 부산·경남지역 종교 및 교육활동』, 광명출판사, 1995, 72~73쪽.
- 17) 相澤仁助, 『釜山港勢一斑』, 日韓昌文社, 1905, 222쪽. 저자 미상, 『釜山教育五十年史』, 釜山教育會, 1927, 66쪽(번역본은 리진호 역, 『부산교육오십년사』, 지적박물관출판부, 2009, 70쪽).
- 18) 그러나 초량 거주 金成律과 같이 외국인의 압제가 증가하는 것에 분개하여 이는 우리 인민의 학식이 발달하지 못한 까닭이라 하여 학문을 성취하기 전까지 혼인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입학하는 이도 있었다.(『대한매일신보』 1907. 4. 7. ‘志學不要’).
- 19) 일어학교는 그 설립 주체 면에서 볼 때 ①일본인 단체 ②일본인 유지 ③조선인과 일본인 유지의 공동설립 ④조선인 유지 ⑤조선정부 설립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개성학교는 ③유형에 해당한다. 김의환은 개성학교의 교육을 ‘노예교육’이라고 평가했다(稻葉繼雄, 『旧韓末「日語學校」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1997 참조. 김의

로부터 1,200원,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1,80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로 보더라도 알 수 있다.

1899년(광무3년)에 부산진과 고관에 開成學校 支校가 설립되었으며, 동래에는 보조학교로 일어학교가 설립되었다. 영주동 본교에 초등과(전기 3년), 중등과(4년), 고등과(2년)가 설치된 데 반해, 부산진 지교의 경우 초등과 前期 3년으로 운영되었으며 교원 2명, 학생 87명이었다.²⁰⁾ 1905년경 부산진지교의 학생수는 87명, 교원 2명이었다.²¹⁾

개성학교는 궁핍한 서민 자제를 대상으로 ‘일본어에 의한 보통학’을 교수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일본의 주력 산업이었던 製絲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양잠과 제사법을 강조했으며 그 생산품을 ‘궁내성에 바쳐 일본 황후로부터 다과를 하사받는 영광’을²²⁾ 기리는 것으로 보아 철저하게 일본 교육시스템과 교육목표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성학교를 ‘선각자 박기중’이 설립한 학교로 그 전통의 계승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독이다. 개성학교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여자교육은 도외시되었다.²³⁾

환, 『부산근대교육사』, 태화출판사, 1967, 52쪽). 그럼에도 여전히 개성학교를 피상적으로 ‘근대 학교’라고만 평가하는 연구가 생산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양홍숙, 『개항 후 근대 공간, 초량의 형성』,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소명출판, 2013, 84~85쪽을 들 수 있다). 이는 ‘근대’에 대한 물가치적 역사관과 사실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참고로 1900년경 경향 각지에 일본인이 설립한 일어학교는 총 11곳으로 동래에도 釜山學院이 설립되어 있었다(『황성신문』 1900. 2. 5. ‘京鄉學校’).

20) 『釜山教育五十年史』, 1927, 67쪽. 김형목, 『구한말 학교사연구 기초자료-부산 개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3-3, 2011, 160쪽.

21) 相澤仁助, 『釜山港勢一斑』, 1905, 225쪽.

22) 『釜山教育五十年史』, 1927, 68~69쪽.

23) “大阪朝日新聞을 據한즉 한국 경성은 여학교 설립의 議가 曾有하나 其實行은 杳然 無聞하니 원래 경성의 교육사업은 每樣 政變을 수반하여 盛衰起蝨이 있으나 부산 부근은 남자만 열심히 교육할 뿐인데…”(『황성신문』 1899. 5. 10. 『韓國女子教育』). 그런데 이때 한국인 자산가가 여자학교 설치를 계획하고 일본에 보조금을 청구했는데

부산지역에서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1906년 朴泳吉²⁴⁾과 金洛駿²⁵⁾·崔有鵬²⁶⁾ 등이 발기하여 뜻있는 이들에게 勸捐金을 모집하여 건립한 초량소학교였다.²⁷⁾ 이들은 주로 동래의 譯官이나 主事 출신으로 개화파 박영효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08년 학부는 사립 초량학교와 별도로 초량에 보통학교를 건축했다.²⁸⁾ 1909년 순종이 일본 군함에 들렀다가 돌아올 때 義陽君을 학교에 파견할만큼²⁹⁾ 초량학교는 부산의 대표적 학교였던 것 같다.

먼저 선행교육이 있는 일본과 한국인 부녀 수십 명을 한 곳에 모아 交情을 온화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개성학교와 비슷하게 근대 교육을 가르치면서 일본과 조선의 부녀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융합시키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 24) 박영길은 한말 사헌부 監察(從2品 嘉善大夫)이었으며 개항 후 일어학교를 수학하여 개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박영효를 추종했다. 일본 에히메(愛媛)현 마츠야마(松山) 시에서 織機業에 종사하다가 1904년 귀국하여 사립초량학교 교장, 동래부 民議所 이사로 활동했고, 일제시기에 부산부 府參事를 역임했다(『朝鮮紳士大同譜』, 468쪽. 『保天第六〇四號 朴泳吉ノ渡日後動靜』(1902.6.9) 『韓國近代史資料集成 2』. 『甲秘第566號 韓人歸國之義二付申報』(1904.5.3), 『韓國近代史資料集成 3』. 『甲秘第266號 崔敬鵬·朴泳吉ノ動靜報告』, 『韓國近代史資料集成 1』.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19~1920).
- 25) 김낙준은 초량의 通詞 출신으로 주일공사관 통역관(1894), 농상공부 참서관(1895), 東萊郵遞司長·釜山郵遞司長(1895~1896) 등을 지냈다(別紙 口号 『親展送 第26号』 (1894.4.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안용식 편, 『대한제국관료사연구 I』,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4, 63쪽; 『대한제국관료사연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6, 16쪽).
- 26) 최유봉은 동래부 주사로 한때 활빈당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 박영효가 소유한 경성 부근과 기타 지방 소재 토지의 감독을 맡아했던 인물이다. 그는 金永奎와 함께 상업회의소를 설립하기도 하여 부산항 사회에서 알려진 인물이었다(『活貧黨連累者團東件』(1900.10.18.), 『崔有鵬逮捕拘禁件』(1900.10.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황성신문』 1902. 4. 19. ‘李崔白放’. 『乙秘第五三二號 韓人二付テ(朴泳孝와 崔有鵬·丁時雨와의 面談)』(1906.7.27), 『한국근대사자료집성 3』. 『대한매일신보』 1909. 4. 9 ‘釜港의 兩氏’).
- 27) 『대한매일신보』 1906. 3. 21. ‘草梁設校’. 동래부 참서관 崔惠이 사립초량학교에 이 받기게 1대를 기부하여 학도들에게 머리카락을 깎도록 권유하며, 20원을 기부하여 모자를 쓰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초량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황성신문』 1907. 12. 10. ‘熱心勸學’).
- 28) 『황성신문』 1908. 3. 1. ‘十校位置’. 『황성신문』 1908. 3. 4. ‘普校基地視察’
- 29) 『황성신문』 1909. 1. 15. ‘還御路次觀覽’. 『신한국보』 1호, 1909. 2. 12. ‘어순군함’.

부산진지역에서는 지역 유지가 설립한 漢文塾 育英齋가 1908년 사립 육영학교로 재편되어 개교했다. 1909년 4월 부산진사립보통학교로 인가받았으며, 이후 1911년 5월 부산진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³⁰⁾ 좌천동에도 徐錫籌와 몇몇 유지들에 의해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후에 부산진보통학교로 병합되었다.³¹⁾

2. 여성 교육기관과 민족교육

선교사들은 성경을 읽히기 위해 한글을 가르쳤고, 이러한 선교과정에서 부수하여 부산진지역에서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근대 문명 수용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인들의 민족교육과 사립학교 설립을 자극했다.³²⁾ 특히 호주 여선교사들이 여성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한 일신여학교 설립은 지역사회에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크게 제고시켰다.³³⁾

여자교육기관의 시초는 호주 선교사들이 설립한 부산진 일신여학교였다. 1892년 호주선교회의 선구적인 여성선교사 멘지스(B. Menzies, 한국명: 閔之使, 1856~1935)와 페리(Jean Perry)는 “세 명의 고아들이 장차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찍부터 훈련할 목적으로” 세 고아를 데려왔다. 더 많은 소녀들이 모여들었고 이것을 미오라 고아원(The Myoora Orphanage)으로 불렀다. 이후 1895년 10월 15일 좌천동 초가에서 수업 연한 3개년의 소학교를 설립하여 멘지스가 교장을 맡았

30) 리진호 역, 『부산교육오십년사』, 2009, 75쪽. 1922년 11월 범천동 현 부산진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했다.

31) 리진호 역, 앞의 책, 2009, 76쪽.

32) 노영숙, 「개화기 선교사들의 기독교 교육이 근대 교육문화에 기여한 교육적 의의-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1884~1941)」, 『기독교교육논총』 34, 2013, 368~370 참조.

33) 魯仁華, 「한말 개화자강파의 여성교육관」, 『한국학보』 27, 1982. 이송희, 「한말, 일제 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16, 2005.

다. 이것이 일신학교의 탄생이다. 1905년 4월 좌천동 768번지에 교사를 신축하였고, 1909년에 이르러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부산에서 조선인이 설립한 최초의 여자교육기관은 1908년 5월 부산진 養貞婦人會의 후원으로 개설된 養貞塾이었다.³⁴⁾ 양정부인회는 부산진지역의 부인회로 자강운동이 전개되던 한말 어느 시기에 조직되었던 것 같은데, 일제시기에도 지속되었다. 대개 여학생들은 7살에 입학하여 13살에 양정숙을 졸업하고 얼마간 가사를 돌보다 시집가곤 했다고 한다.³⁵⁾ 양정숙은 1909년 9월 양정부인회의 기부금에 의해 교사를 신축하고 사립부산진보통학교에 병합되어 분교가 되었으며, 이후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4월 8일 부산진 만세시위를 주도한 김애련(<표 2> 참조)은 바로 이 양정숙의 후신인 부산진보통학교 학생(제2회 졸업)이었다.

일신여학교와 양정숙 설립은 여자교육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환기시켰고, 이에 사립초량학교도 초량부인회의 후원 하에 여자부를 설립했다. 몇 해 동안 존속되었으나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그 부지 일부는 부산공립보통학교 여자부에 제공되었다.³⁶⁾

이와 같이 한말 부산지역에서는 양정부인회, 초량부인회, 구포부인회와 같은 지역별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여자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³⁷⁾ 그런데 양정부인회는 부산진공립보통학교 훈도(1912~1916)

34) 리진호 역, 앞의 책, 2009, 75쪽. 부산진 양정부인회는 1929년에도 부산진 大池公園에서 제22회 정기대회 기념운동을 개최할 정도로 부산지역의 우수한 부인단체였다(『조선일보』 1929. 6. 9. ‘釜山鎮養貞婦人會 운동회도 개최’).

35) 『만세할머니 김애련』, 『부산문화』 2-2(통권 3호), 1985년 3·4월, 227쪽.

36) 리진호 역, 앞의 책, 2009, 75쪽.

37) 예컨대 1909년 초량에 여자학교를 새로 건축하는데 건축비부족액을 모집하기 위해 초량부인회의 金恩慈, 徐興淑 등이 경시청에 청원 차 상경했다. 또한 구포부인회 평의원 김마리아도 경비가 궁핍한 인근 학교에 금액을 보조하는 등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황성신문』 1909. 7. 20. ‘草梁女校建築費請捐’. 『황성신문』 1910. 8. 16. ‘婦人獎學’. 『대한매일신보』 1909. 7. 20. ‘建築費請求’. 『대한매일

인 김용세가 監督이고, 任學宰가 회장인 것으로 보아³⁸⁾ 주로 부산진보통학교 훈도들에 의해 통제,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말에는 자강운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민회와 함께 설립되어 근대화를 지향했으나, 일제시기에는 지배체제에 순응하면서 자선구호행사에 참여하거나, 친목 도모를 꾀하는 부녀단체로 변형되었다.³⁹⁾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항 후 한말 초량과 부산진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다양한 성격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 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 단순히 서양의 근대 문물과 사조를 전달하거나 혹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우호적 교류관계 조성과 일본의 조선 지배를 위한 조선인 매개자의 육성에 역점을 두기도 했고, 이와 반대로 한국의 현실을 자각케 하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구국교육을 목표로 하기도 했다. 실제 학생들의 졸업 후 경로는 이러한 교육목표에 부응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개성학교를 나온 후 일본 유학을 통해 일제 지배기관에 취업하여 출세하려는 이가 있었던 반면, 구국교육을 받은 학생 중에는 졸업 후 계몽운동에 참여하여 야학운동을 하거나 혹은 비밀결사단체에 가입

신보』 1910. 8. 17. ‘김씨 열심’).

38)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1912~1916년도, 『조선일보』 1929. 6. 9. ‘釜山鎮養貞婦人會’. 입학제는 1939년 6월 부산부 사회계에서 11개 부인단체를 연합하여 관변단체인 부산연합부인회 발회식을 거행할 당시 부회장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아마도 오랫동안 양정부인회의 회장으로 일했던 경력이 고려되었을 것이다(『釜山日報』 1939. 6. 1. ‘內鮮一體 強化의 聯合婦人會 創立’. 『동아일보』 1939. 6. 3. ‘『釜山十一個團體의 聯合婦人會 結成’).

39) 1916년경 부산진보통학교 교장 荻田廣吉이 진력하여 회원수가 80여 명에 달했고 “조선인으로는 희한하다 할만큼 일본어 사용에 흥미를 가지고 관청에서 民籍 조사차 출장하면 잘 나와서 응답하고 보통학교와 연락하여 학교 부속 야학회 입학생도 권유하는 등 자발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1929년경 부산진양정부인회는 제22회 정기대회기념운동회를 부산진 大池公園에서 개최했으며, 부산진 각 사회단체 연합으로 만들어진 부산진경북기근구제회와 함께 초량정, 수정정, 좌천정, 범일정을 가가호호 다니며 기부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했다(『매일신보』 1916. 2. 27. ‘釜山鎮鮮人婦人會’. 『조선일보』 1929. 6. 1. ‘釜山鎮救飢會 委員四十總出로’. 『조선일보』 1929. 6. 9. ‘釜山鎮養貞婦人會’).

하여 활동하기도 했다.⁴⁰⁾

대한제국의 쇠망과 일제의 침탈이란 상황에서 일신여학교를 비롯해 조선인들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교육은 대개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주력했으며, 이에 학생들의 救國心은 고조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당시 부산 여러 학교의 남녀 학도들이 협의하여 음력 新年歲拜頌祝에서 舊習은 폐지하고 다만 ‘대한독립’이란 祝語로 하자고 정하여 남녀학도들이 일제히 이 축사를 통용함으로 지나가던 행객들이 칭송했다고 한다.⁴¹⁾ 또한 초량학교의 여학생이 60여 명인데, 同校를 시찰한 모씨가 6세 된 金喜準이란 여학도에게 공부하는 희망을 물으니 ‘국권회복의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대답할 정도였다.⁴²⁾ 이 어린 여학생의 향학열과 애국심은 초량학교 교사의 교육 목표를 반영한 교과과정에서 배태되었을 것이다.⁴³⁾

일제 관헌의 사찰 보고에서 잘 드러나듯이, 일신여학교가 위치한 부산진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는 한말 국권 상실의 상황에서 매우 반일적이

40)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좌천리 출신의 宋泰昇은 1900년 개성학교 중등과 졸업 후, 일본에서 東京數學院 보통과, 東京巖倉鐵道 建築科를 마치고 돌아와 통감부 하의 內部 治道局 技手(判任官)가 되었다(『대한제국관원이력서』 21책, 559쪽. 같은 책 38책, 838쪽).

반면, 1920년 9월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의열단원 박재혁(1895~1921)은 부산진 사립육영학교와 부산진공립보통학교를 거쳐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의열투쟁은 부산상업학교 재학 시 최천택과 함께 조직한 비밀결사 구세단에서 연원되지만, 민족의식은 사립육영학교 시절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다(김승,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 『文化傳統論集』 14, 2007. 박철규, 『3·1운동 이후 부산지역 의열활동-박재혁을 중심으로』, 『3·1운동100주년기념학술대회』, 2018년 10월 30일 발표).

41) 『황성신문』 1908. 3. 3. ‘大韓獨立의 祝語’

42) 『황성신문』 1908. 3. 17. ‘女徒國性’. 『대한매일신보』 1908. 3. 17. ‘草梁盛事’. 『海朝新聞』 36호, 1908. 4. 8. ‘女士可愛’. 여기에서 말하는 초량여학교는 별도의 여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립초량보통학교 내 여학생교실을 말한다.

43) 이 사립초량학교에는 정신여자중학교 졸업생이 교사로 부임하여 가르쳤다는 것으로 보아, 교사진이 민족교육에 주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대한매일신보』 1909. 5. 13. ‘女師被選’).

었다. 1909년경 일제 헌병대는 “배일 고취자는 신교 그중에서도 장로파에 많고 구교(천주교)는 포교방법이 온당하고 배일의 언동이 적다”고 파악했다. 배일사상을 고취하여 政敎의 혼동이 심한 곳으로 평양·정주·선천·의주·강계 등 서북지방을 들었고, 경상도에서는 부산진과 초량을 지목했다.⁴⁴⁾ 부산진은 경상도지역에서 기독교 그 중에서도 장로교파가 가장 강한 곳이었다.⁴⁵⁾

1907년 8월경 釜山理事廳은 통감에게 올리는 시국 보고에서, 경북 寧海郡 일대 신돌석의병부대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한편, 부산항에 정박한 미국 군함 새터롱거호에 승선한 부산진 거주 외국인 선교사와 부산진 거주 조선인(高明友)의 동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로 보아 부산진의 외국인선교사와 그들과 접촉하는 조선인의 언행은 철저한 사찰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⁶⁾

일신여학교 초대교장(1895.10~1902.6) 멘지스는 1908년 2월 10일 행한 고별 연설에서 생도와 학부모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미국은 세력이 강하고 金力이 풍부하다는 것과 군함이 우세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해설한 뒤, ‘미국과 일본은 머지않아 전쟁을 시작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부산진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패전할 것이고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 한국을 扶植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요지였다.”⁴⁷⁾ 1902~1912년 일신여학교 교장을 역임한 선교사 앵겔(Rev. G. Engel, 한국명: 王吉志)⁴⁸⁾ 역시 1908년 3월경 “미국의 軍備는 일본에 비해 대단히 강대하기 때문에

44) 『憲機第1707號 韓國基督教ノ現況』(1909.9.2), 『統監府文書 6』.

45) 『憲機第1707號 韓國基督教ノ現況』(1909.9.2), 『統監府文書 6』.

46) 『機密發第35号ノ14時局其他ニ關スル件』(1907.8.21), 『統監府文書 3』.

47) 『警秘第345號 慶尙南道釜山警察署長報告』(1908.2.27), 『統監府文書 1』.

48) 앵겔은 1900년 내한하여 1920년까지 부산에서 선교사업을 전개하며 경남 동부지역 9개 교회를 관할했다. 이후 평양으로 移居하여 장로교신학교 교수로 활동했다(『八年誌』, 234~235쪽. 네이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개전이 되면 미국의 필승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여러분을 구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전이 되면 나는 여러분들과 결별하여 귀국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헌병대는 “본인이 미국인이라 말하고 있으나 실제 오스트레일리아인이며 傳敎를 할 때에는 일본인을 들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⁴⁹⁾ 이와 같은 외국인 교장과 선교사들의 메시지는 학생과 일반 조선인들에게 국력이 훨씬 강한 미국이 일제의 조선 침탈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교회와 그 부설 학교가 보호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학교를 경영하는 외국인 교장과 선교사들의 이러한 배일적 분위기와 함께 비밀결사에 참여하여 활동한 조선인 교사의 교육은 학생들의 반일 의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일신여학교 교사 서매물은 1913년 평양 崇義女學校 교사들이 조직한 비밀결사 송죽회의 조직원이었다.⁵⁰⁾ 당시 일반적으로 장로교계통의 기독교를 졸업하면 같은 장로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보모)로 취직했는데, 서매물도 송의여학교 출신으로⁵¹⁾ 같은 장로교계열 일신여학교에 취직했을 것이다. 1910년 10월 이전부터⁵²⁾ 일신여학교에서 근무하고

49) 『憲機第133号』(1908.3.18.), 『統監府文書 1』.

50) 최은희, 『祖國을 찾기까지』 中卷(1973)에 의하면 “송죽회는 1916년에 이르러 지방 조직에 착수하여 부산지방 조직책임자로 徐梅物이란 여성을 파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徐梅物은 1913년 3월 31일자 발행 文順儉의 졸업증서에 교사로 제시되어 있다(동래학원팔십년지편찬위원회, 『八十年誌 1895~1975』, 학교법인동래학원, 1975). 따라서 ‘1916년에 조직원으로 파견했다’는 최은희의 서술은 오류이다.

『崇義八十年史』, 130~131쪽에서는 1913년 송죽결사대 결성 시 서매물을 대원으로 규합했고 이후 평양, 선천, 목포, 제주도, 부산으로 구획하여 각 지역 대표를 선발할 때 서매물을 부산대표로 정했다고 되어 있다.

51) 『崇義八十年史』(송의학원, 1983), 903쪽에 의하면 서매물은 1916년 제7회 졸업생이다. 그런데 각주 52)에서 밝혔듯이, 서매물은 이미 1910년 이전에 일신여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52) 1930년경 교장 데이비스(M.S.Davies, 한국명: 代瑪嘉禮)가 1910년 10월 2일 부산항에 처음 도착한 직후 이날 일신여학교의 교사 張貴任, 金道順 그리고 ‘徐매무리’를 만났다고 회고한 사실, 그리고 『舊職員一覽』에서 서매물의 ‘확인된 재임 연도’가

있던 서매물은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교육했을 것이고 이러한 교육 소신과 장로교와의 연결로 송죽회의 회원이 되고 부산지역을 담당했을 것이다. 일신여학교의 이러한 반일적 분위기와 민족 교육은 3·1운동의 자양분으로 축적되었다.

Ⅲ. 3·11 독립만세 봉기와 2차 시위

1. 3·11 독립만세시위와 그 주인공들

서울과 평양, 원산 등지에서는 3월 1일에 만세 시위가 발생했는데, 부산에서 시위 조짐이 나타난 것은 3월 3일경이었다. 이날 기독교도들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모두 체포하면서 시위는 무산되었다.⁵³⁾ 3월 10일 아침 조선인 거주지인 영주동, 초량, 부산진 등지에서 간밤에 붙인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격문이 발견되어 경찰에서 엄중 경계에 들어갔다.⁵⁴⁾ 일제 고등경찰 보고에 의하면, 이날 京城學生團 명의로 독립운동을 권유하는 서신을 받은 부산상업학교 학생들이 동요의 조짐이 있어 엄중경계 상태로 돌입했다고 한다.⁵⁵⁾

부산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시위 상황을 접하고 암암

1910년 10월인 것으로 보아 부임 시기는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八十年誌 1895~1975』, 1975, 185~186쪽, 279쪽).

53) 『大正8年 3월 4일 高第5725號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5報)』,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原書房, 1967, 321쪽; 『朝鮮3·1獨立騷擾事件』, 조선헌병대사령부, 조선총독 경무총감부, 1919(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3·1운동사자료집』, 1973, 904쪽 所收). 3월 3일 경남지방에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마산에서도 독립선언서가 발견되었다.

54) 『매일신보』 1919. 3. 12. ‘騷擾事件의 後報-부산 만일을 경계 중’.

55) 『大正8年 3月 10日 高第 6506號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5報)』,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原書房, 1967, 341쪽.

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부산상업학교와 동래고등보통학교, 일신여학교 등이 중심이 되어 서로 연락을 취하며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⁵⁶⁾ 시위 거동을 탐지한 경찰과 부산제2상업학교 측은 3월 11일 돌연 시험을 중지하고 임시휴업을 단행, 경찰이 학생들을 호위하여 귀가시킴으로써 시위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⁵⁷⁾ 원래 3월 11일 부산지역과 동래 지역에서 학생들이 거사를 단행하기로 준비해왔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 챈 경찰이 부산상업학교의 임시휴업을 단행함으로써 거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11일 시위 전 날인 “10일 밤 여학생 100명이 결속하여 모였고 이에 보통학교 상급생 20명이 참여하여 시위운동을 개시하고자 하여, 관헌의 엄중한 경계로 즉시 해산시켰지만 형세는 불온하다”란⁵⁸⁾ 大阪毎日新聞의 전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일신여학교의 시위는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 전보에 의하면 일신여학교 시위는 10일 밤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고, 경찰의 해산으로 불발로 끝났다가 11일 밤에 재개된 것이다.

일신여학교의 만세시위 준비과정이나 전후 정황을 알려주는 자료는 1970년대 초에 시위주도자들을 인터뷰하여 구성한 기록들과 일제 관헌 자료가 있다. 먼저 이명시와 박정수를 인터뷰하여 최은희가 기술한 내용을 보면, 3월 8일 토요일 오후 한 기숙생이 이명시에게 전하기를, “우물가에 나갔다가 제2상업학교 학생이 격문(독립선언서?)을 주면서

56) 예를 들어 부산상업학교 생도인 朴性海는 3월 초순 평양의 지인으로부터 독립선언서가 송부되어 오자, 동료들에게 이를 보이고 부산에서도 시위운동을 계획했다고 한다 (『大正8년 6월 14일 대구복심법원판결』).

57) 『매일신보』 1919. 3. 13. ‘騷擾事件의 後報-부산 직시 해산식허’. 『매일신보』 1919. 3. 14. ‘騷擾사건의 後報-부산 녀선교사 인치’. 이 보고에서는 이 시위의 선동자를 외국인 여자선교사 2명과 조선인 목사로 파악하고 이들을 체포하여 목하 취조 중이라고 기술했다.

58) 『大阪毎日新聞』 1919. 3. 13. ‘부산에서는 여학생 시위운동 형세불온’(윤소영 편, 『日本新聞韓國獨立運動記事集(Ⅱ)-3·1운동편』, 2009, 178쪽).

이를 많이 만들라고 하고 이후 다시 연락하자고 했다.” 이날 오후 4시경 주경애·박시연 교사가 기숙생 7, 8명을 학이네 산이란 곳으로 불러 독립선언서를 읽고 “날자가 정해지면 제2상업학교 학생들이 알려줄테니 태극기를 비밀히 만들어놓고 날자를 알게 되는 대로 우리에게 즉시 연락해주어” 라고 부탁했다.⁵⁹⁾ 야간에는 기숙사에서 포목으로 태극기 50~60매를 제작하여 숨겨두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3월 11일 오후 6시경 부산제2상업학교 학생이 “오늘 저녁 8시에 일신학교에서 내려다 보이는 신작로에 모이기로 했으니 통학생들에게도 빨리 연락해서 많이 나오게 해주시오”라고 전달해왔다. 이에 동래 야학에 가던 주경애와 박시연 교사가 이명시의 연락을 받고 학교로 돌아왔다. 기숙생은 전원이 다 나갔으나 통학생에게는 연락이 미처 안 되어 30명 정도의 여학생이 신작로에 집결했고, 8시가 되자 어디선가 한꺼번에 고함소리가 들리며 청년들과 제2상업학생들이 비라를 뿌리며 나왔다. 그들의 만세 소리에 따라 일신여학교 학생들도 만세를 불렀다. 대마가레 교장과 許大時(후킹) 선교사도 나와서 만세를 불러 학생들의 사기를 돋우었다. 3, 4백 명의 군중이 집합했는데 일제는 호주 부인 두 명과 남녀 학생 40여 명을 체포했다. 주재소에서는 일본인 개인 주택의 목욕간 같은 곳을 빌려 분산시켜 감금했다.⁶⁰⁾

반면 김응수·송명진·김난줄을 인터뷰하여 구성한 김의환의 기록에서는 “3월 11일 새벽 기숙사 주변에 뿌려진 격문을 고등과 4학년 金應守가 주워서 주경애 교사에게 갖다 주자, 그는 ‘이 비라는 중앙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라는 비라이니 비밀을 지키고 있어라’라고 귀뜸을 해주면서 ‘오늘 저녁 9시에 부산상업학교 학생들과 만세를 부르기로 했다’고 알려주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⁶¹⁾

59) 최은희, 『祖國을 찾기까지: 1905-1945 韓國女性活動秘話』 中卷, 1973, 267~268쪽.

60) 최은희, 앞의 책, 1973, 271~272쪽.

한편 일제 관헌자료에 의하면 이날 밤 9시경 “부산진에서 약 백 명 가량의 군중이 기독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개시”함으로써 부산지역에서 첫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⁶²⁾ 이에 급거 부산경찰서에서 출동하여 해산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⁶³⁾ 14일 보고에서는 “林末伊와 생도 1명을 취조한 바 ‘교장 캐나다인 선교사 데이비스와 주경애가 중심이 되어 교원 일동에게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하므로 우리 학교에서도 거행해야 한다고 협의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3월 10일 고등과 생도 11명이 기숙사에서 舊韓國旗 50매를 제작하고 이를 기숙사감독 멘지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해 同人을 취조했다.…또 데이비스 및 여교사 훗킹 두 사람은 소요 당일 ‘푸리쇼’(만세를 高唱하자는 뜻)라고 高唱하며 생도를 지휘했고 생도는 일제히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서술했다.⁶⁴⁾

양 인터뷰를 교차비교해보면, 전자는 시위를 주도한 주경애와 박시연 교사가 3월 11일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정확한 거사 일시를 제보받았고, 후자는 이미 11일 이전에 저녁 9시 거사일시를 연락받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3월 11일 거사를 이명시가 당일 오후에 부산제2상업학생들로부터 연락받고 주경애 교사에게 알렸다는 설과 주경애 교사가 이

61)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 1983, 179~180쪽. 이 책의 일부 내용은 1971년에 행한 인터뷰를 참고하여 서술되었다(『국제신보』 1971. 3. 1. ‘3·1節 52돌에 되돌아보는 日新女學校 주모자들의 座談’).

62) 『大正8年 3月 12日 高第 6763號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13報)』,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原書房, 1967, 354쪽. 『高等警察關係摘錄 1919-1935年』(경상남도경찰부, 1936), 5쪽에서는 발생시각을 ‘오후 10시경’으로 기술했다.

63) 『매일신보』 1919. 3. 13. ‘騷擾事件의 後報-부산 직시 해산식혀’. 『매일신보』 1919. 3. 14. ‘騷擾사건의 後報-부산 녀선교사 인치’. 13일자 기사에서는 오후 5시 30분에 시위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誤報이다.

64) 『大正8年 3月 14日 高第7097號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15報)』,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7冊 其7. 『高第10462號 騷擾事件에 대한 外國宣教師의 言動에 관한 件』,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8: 종교운동편』, 국사편찬위원회, 2002.

미 연락받아 알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고지했다는 설 두 가지이다.

공통적인 내용은 李明施가 부산제2상업학교 학생들과의 연락을 담당했으며,⁶⁵⁾ 교사 주경애와 박시연에 의해 민족의 현실을 자각했다는 점이다.⁶⁶⁾ 또한 만세 시위의 시각은 8시와 9시로 다른데, 이는 집합시간과 시위 시작 시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데이비스 교장과 훗킹 선교사의 만세 시위에 대한 태도이다. 이명시 등은 이들이 만세의거를 지원했고 직접 시위에 동참했다고 기억한 반면, 송명진은 일본 헌병보다도 두 사람이 잡으러 오는 것이 더욱 겁이 났다고 기억했다.⁶⁷⁾ 일제측 기록과 당시 정황으로 보건대, 교장과 선교사는 학생들을 잡으려고 했다가보다 학생 보호 차원에서 뒤를 따라다닌 것으로 보인다.

시위 참가자 수에 대해 일제는 50~100명으로 파악했다.⁶⁸⁾ 그리고 이명시와 박정수의 기억에 의거한 최은희의 구성에 의하면 “청년들과 제1상업학교 학생들이 비리를 뿌리며 나왔고…3, 4백 명의 군중이 집합했다”고 했으나, 김난줄은 “시민들은 이 운동에 참가치도 않았고 동래고

65) “金蘭苗: 李明施라는 학생이 동래고보와 제2상고에 연락병 노릇을 하였고 우리에게 9시에 ‘만세’ 소리가 나면 전부가 합세하라고 알려줬다. 그날은 마침 야학을 하였다.”(『국제신보』 1971. 3. 1. ‘3·1節 52돌에 되돌아보는 日新女學校 주모자들의 座談’).

이명시의 연락병 역할은 여러 책에서 동일하게 기술되고 있다(『八十年誌』, 학교법인 동래학원, 1975, 27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 하』, 1983, 179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0권: 학생독립운동사』, 259쪽). 당시 17세로 고등과 2학년인 이명시는 데이비스 교장의 수양딸이었다(최은희, 『祖國을 찾기까지』 中卷, 267쪽. 저자 최은희는 3·1운동 시기 경성여자보통학교 학생으로 시위에 참가하여 체포되었고 이후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일신여학교 시위참가자인 이명시와 박정수를 직접 인터뷰했다).

6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9권: 학생독립운동사』, 259쪽.

67) 『국제신보』 1971. 3. 1. ‘3·1節 52돌에 돌아보는 日新女學校 주모자들의 座談’.

68) 『朝鮮騷擾事件經過概覽表』(自大正 8年 3月 1日至大正 8年 3월 31日,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7책(大正8年乃至同10年)에서는 5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나 제2상고 학생들도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했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시위로 인한 체포자 중 일신여학교 학생이 아닌 범일동 거주 朴蓮伊⁶⁹⁾ 학생과 좌천동 거주 주민 朴斗天(남자)이 체포되어 징역을 살았던 점, 특히 박두천은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23년 사망한 것 등으로 보아 좌천동과 인근 범일동 거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위 모의에 함께 해왔던 부산제2상업학교 학생 중 체포자가 없는 것은 일제 경찰의 사전 검속이 부산제2상업학교에 철저하게 집중되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미주에서 발간되는 『신한민보』도 3월 11일 만세 시위에 대해 “일신여학교 생도 일동이 중심되어 백여 명 부녀의 시위운동”이라고 파악했다.⁷⁰⁾ 『大阪朝日新聞』은 “야소교회가 설립한 神明女學校(일신여학교의 오기)에서 여학생 40명과 그 외 다수가 참가하여 목소리를 맞춰 만세를 외치고 시내를 행진하던 것을 해산시켰다”라고 보도했다.⁷¹⁾

69) 「명적표」에 의하면 박연이는 1900년 10월생(당19세)으로 신분: 평민, 직업: 학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1971년 2월 27일 김의환이 김응수, 송명진, 김난줄을 인터뷰한 기사 말미에 1919년 3월 부산형무소에 있었던 부산진일신여학교생으로 주경애, 박시연, 문복숙을 포함하여 총13명을 기재했는데 여기에 ‘朴蓮’을 적시했다(『국제신보』 1971. 3. 1. ‘3·1절 52돌에 되돌아보는 일신여학교 주모자들의 좌담’).

그러나 박연이는 총 38명의 <부산진일신여학교(고등과) 졸업생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일신여학교 학생이 아니라 부산진공립보통학교 학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김응수가 박연이에 대해 “시위에 시종 학생들과 행동을 같이 한 좌천동 거주 처녀 朴蓮은 부산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회고한 것으로 보아 박연이가 일신여학교 학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八十年誌』, 32쪽. 「김응수」, 『釜山慶南三一運動史』, 1979, 103쪽).

70) 『신한민보』 1919. 5. 6. ‘부산 우리 누이들의 활동략보’.

71) 『1919년 3월 13일 여선교사 구금 부산의 소요』, 『日本新聞韓國獨立運動記事集: 3·1 운동편(1) 大阪朝日新聞』(운소영 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43쪽. 신명여학교는 1907년 대구에 설립된 장로교계통 학교이다.

80 함도부산 37

<표 1> 1919년 3월 11일 부산진 만세시위와 3월 13일 통영 시위 주도 인물

	인명(異名) (포상연도)	생물기간/ 졸업연도	본적(주소)	형량	당시 직업, 신분	이후 경력 및 활동
1	朱敬愛	貞信女學校 9회졸업(1917)		징역 1.6년, 1920년 4월 20일 출옥	일신 여학교 교사	일본 여자대학 문과 졸, 夫:崔斗淵
2	朴時淵 (2018)	1901.4.~? 일신 6회졸업		1.6년	일신 여학교 교사	夫:박정인
3	朴貞守 (2015)	1901.3.8.~? 고등과 1년	부산 좌천(同)	징역 5월	일신 여학교 학생	부산여자 청년회, 근우회 집행위원 (1929)
4	金應守 (金壽) (1995)	고등과 3년 1901.1~1979.8	경남 통영군 통영면 大和町 43(좌천동 일신여학교내)	同	同	夫:曹成大
5	李明施 (2010)	1902.2.~1974.7 고등과1년, 10회 졸업	경남 합천 三嘉 金洞	同	同	夫:李均直
6	金班守 (1992)	1904.9~2001.12 고등과 4년, 7회졸업	경남 동래 칠산 232(경남 밀양 밀양 丙一 477)	同	同	夫:許庸 (교원)
7	金奉愛 (2015)	1901.11~? 고등과 4년	경남 마산만 (부산 좌천)	同	同	
8	金福善 (2015)	1901.7~?	경남 김해 (부산 좌천)	同	同	
9	宋明進 (斗伯) (2015)	1902.1~? 고등과1년, 10회졸업	경남 울산 하상면 서동 (부산 좌천동)	同	同	夫:吳龍振

10	沈順義 (只,伊) (1992)	1903.11~? 고등과 4년, 7회 졸업	부산 좌천 470 (동)	同	同	
11	金蘭茁 (金蘭出) (2015)	1904.7~1983.7 고등과 2년, 9회졸	부산 좌천 115 (同)	同, 1919.9.28. 출감	同	夫:宋相錫
12	朴連伊 (朴蓮伊) (2015)	1900.2~1945.4	부산 범일293 (同)	징역 5월	학생 (부산진 공립보 통학교?)	
13	朴斗天 (1995)	1897.11~1923.6	부산 좌천571 (좌천 569)	징역 8월	일반 주민 (男)	
14	金順伊 (2014)	1903.7~1919 17세, 5회 졸업	부산 좌천동 (경남 통영 대화정)	징역 6월	통영 대화정 유치원 교사	통영시위 (3.13)
15	文福淑 (2018)	19세, 5회 졸업		同	同	통영시위 (3.13) 夫:梁聖奉
16	梁聖淑	일신 2회 졸업		면소		통영시위 (3.13)

출처: 『名籍表』(김봉애, 김응수, 김복선, 박연이, 김애련). 『신분장지문원지』(김난줄, 박정수, 송명진, 김봉애, 이명시, 김복선, 박연이), 『가출옥증표』(김응수). 『범죄인명부』 참조, 『독립유공자공적조서』, 『독립유공자공훈록』, 『매일신보』 1919. 4. 7. ‘釜山鎮女學校 妙齡의 學生’. 『매일신보』 1919. 4. 19. 『부산진소요공판』, 『중외일보』 1929. 10. 29. ‘근우회 부산지회’. 『부산진일신여학교(고등과) 졸업생명단』, 『八十年誌』, 학교법인동래학원, 1975, 32쪽.

비고: 인명란의 괄호 안 연도는 독립유공자 포상 연도.

주경애는 李垠 왕세자의 가례로 실시한 恩赦 감형으로 1920년 4월 출옥했다.⁷²⁾ 그는 부산 출신으로 1917년 3월 私立貞信女學校를 졸업한 후 일신여학교에 부임했다.⁷³⁾ 주경애는 1920년 4월 20일 출옥 후 일본

72) 최은희, 『祖國을 찾기까지』 中卷, 1973, 274쪽.

73) 김영삼, 『貞信七十五年史』, 정신여자중고등학교, 1962, 255쪽. 『매일신보』 1917. 3.

여자대학에 유학했으며, 이후 崔斗淵과 혼인했다.⁷⁴⁾ 그의 부친인 朱聖林은 1914년 4월 말 미국에 이주하였는데, 3·1운동이 전개되던 해에는 몬태나주(Montana) 하딩 카운티(Harding County)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후 와이오밍주로 이전하여 이발소를 경영했다.⁷⁵⁾ 그는 미국 정착 이후 독립자금이나 각종 후원금을 지원하여 재미한인사회에 알려져 있었는데, 1935년 환국했다.⁷⁶⁾

주경애만 아니라 1909년 사립초량여자학교에 교사로 부임한 黃惠受(1909년 3회 졸업)나 부산진보통학교 교원 鄭順愛(1911년 5회 졸업), 1920년 일신여학교에 부임한 金敬順(1915년 7회 졸업)도 貞信女子中學校 출신이었다.⁷⁷⁾ 이로 보아 부산 경남지역 출신으로 서울에 유학한 정

28. ‘貞信女學校卒業式 졸업생 심사명’. 『신한민보』 1919. 9. 4. ‘주성림씨 본집의 소식’. 그는 제9회 졸업생으로 연동에매당에서 거행된 졸업식에서 졸업생 15명을 대표하여 답사를 했다. 『八十年誌』(279쪽)에서는 주경애의 ‘확인된 재임일자’를 1919년 3월 이후라고 했으나, 이는 문서자료상 확인된 시기일 것이다. 3월 11일 만세시위 이전에 이미 동래지역에서 야학을 운영했다는 여러 명의 회고에 있는 만큼 전후 사정으로 보아 적어도 주경애가 졸업한 1917년 3월 이후 늦어도 1918년경에 일신여학교에 부임했을 것이다.

74) 김영삼, 『貞信七十五年史』, 1962, 255쪽. 『朝鮮人事興信錄』, 朝鮮新聞社, 1935, 204쪽. 表彰者名鑑刊行會, 『朝鮮總督府始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名鑑』, 조선총독부, 1935, 87~788쪽. 최두연은 1912년 경성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8월부터 경남 양산, 기장군 등지에서 조선총독부 郡書記로 출발하여 1923년 이후 慶尙南道 宣寧郡守, 밀양군수, 하동군수, 동래군수 등을 역임하고 1930년에는 勳6등 瑞寶章을 받은 고위관료였다. 1932년 5월 고등관 4등, 1933년 正6위, 1935년 5월 從5위로 승급했다. 농촌진흥사무 촉탁, 경상남도 산업부 촉탁(1936), 조선총독부 학무국 촉탁(1940) 등을 역임했다. 장남 崔康健이 1923년생인 것으로 보아 주경애는 적어도 1922년경 혼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75) 『국민보』 1914. 5. 2. ‘民籍의 消長’. 『신한민보』 1919. 9. 4. ‘주성림씨 본집의 소식’. 『신한민보』 1934. 8. 30. ‘이발소 발매’. 『신한민보』 1935. 4. 4. ‘광고: 이발소 사시오’. 하딩 카운티는 현재 몬태나주 접경 사우스다코다주에 속하는데, 기사 내용 그대로 인용한다.

76) 『신한민보』 1916. 8. 10. ‘국민의무금’. 『신한민보』 1917. 6. 7. ‘국민의무금’. 『신한민보』 1917. 6. 7. ‘박명오사건 의연’. 『신한민보』 1919. 5. 27. ‘독립의연’. 『신한민보』 1919. 7. 26. ‘義務金’. 『신한민보』 1922. 11. 16. ‘의무금’. 『신한민보』 1935. 11. 14. ‘주성림씨 귀국’.

신여자중학교 졸업생들이 부산지역에 많이 부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신여자학교가 미국 북장로교계열에서 설립한 학교로, 초기 부산지역 선교를 담당했던 교파가 미국 북장로교였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 박시연은 金末峰(소설가), 朴順天(1898~1983, 해방 후 독립촉성 애국부인회 회장, 민주당 총재), 文福淑 등과 동급생으로 1917년 졸업 후 바로 모교에 교사로 부임했다.⁷⁸⁾ 그는 재학시절 동급생들과 함께 교무실에 걸린 다이쇼 일왕의 사진을 손으로 긁어 일왕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만들어놓는 등 배일정신이 강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또한 주경애와 함께 동래에 여자야학강습소를 설치하고 여자교육에 힘썼다.⁷⁹⁾

시위주동자들은 시위 다음날인 3월 12일 체포되었고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구치소에 입감되었다.⁸⁰⁾ 이날 구보다(窪田) 검사와 미야무라(宮村) 경찰서장, 헌병분대장 등이 실지검증을 실시했다.⁸¹⁾

체포된 이는 약 30명이었다. 이 중 교장 데이비스 선교사와 훗킹 교사는 구금 이틀 만에 석방되었다.⁸²⁾ <표 1>에서 보듯이 교사 주경애와 박

77) 『대한매일신보』 1909. 5. 13. ‘女師被選’. 김영삼, 『정신75년사』, 254~255쪽. 『八十年誌』, 학교법인동래학원, 279쪽.

78) 朴順天, 『나의學窓時節』, 『八十年誌』, 188~189쪽. 최은희, 앞의 책, 1973, 266쪽.

79) 최은희, 앞의 책, 1973, 266~267쪽.

80) 『김응수명적표』

81) 『1919년 3월 13일 여선교사 구금 부산의 소요』, 『日本新聞韓國獨立運動記事集: 3·1 운동편(1) 大阪朝日新聞』(윤소영 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43쪽.

82) 『매일신보』 1919. 3. 15. ‘女宣教師放還’. 일본 헌병대는 “데이비스와 훗킹이 ‘프리쇼’(만세를 부르라는 뜻)를 고창하며 생도를 지휘하고 데이비스 및 선임여교사 주경애는 교원 일동에 대해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했으니 우리 학교에서도 거행해야 한다’고 제의”했다고 파악했다(『朝鮮3·1獨立騷擾事件』, 조선헌병대사령부, 조선총독 경무총감부(『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3·1운동사자료집』 재수록, 917~918쪽), 반면 재한선교사 보고문건에서는, 경찰은 데이비스 교장과 선교사가 여학생들의 시위를 부추겨서 체포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들은 “시위에 참여한 자신들의 여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 갔다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오인을 받고 체포되어 이틀 동안 감금당

시연, 일신여학생 9명과 부산진공립보통학교 학생 朴連伊와 일반인 박두천 등 총 13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⁸³⁾ 4월 17일 주경애와 박시연은 징역 2년, 학생들은 모두 6개월을 구형받았는데,⁸⁴⁾ 4월 26일 제1심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과 5개월로 선고되었다.⁸⁵⁾ 박두천은 1년을 구형받았으나 8개월을 언도받았다.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이틀 뒤 형이 확정되었다.

형기 종료는 9월 27일(혹은 28일)이었으나 8월 17일 ‘出學’이란 사유로 기출옥되었다.⁸⁶⁾ 형기가 종료되는 9월 말에 출옥할 경우 학교에 복귀하기 어렵고 이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 여학생들의 장기구금이 가져오는 사회 여론의 악화를 감안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3·11 시위 주도자들은 심문, 취조 과정에서 악형과 치욕을 겪었다.⁸⁷⁾

했다”거나 “오히려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서술했다(『제목해독 불가』(1919.4.7.) 『한국독립운동 KOREAN INDEPENDENCE MOVEMENT』(1919.6.5),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83) 『매일신보』 1919. 3. 16. ‘騷擾事件의 後報-부산 녀학생의 음모’. 『매일신보』 1919. 4. 7. ‘釜山鎮女學校 妙齡의 學生 열명이 기소됨’.

84) 『매일신보』 1919. 4. 19. ‘釜山鎮騷擾公判’.

85) 현재 이들의 판결문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선고 형량을 파악하지 못하여 자료별로 편차가 있다. 『여성독립운동사자료총서-3·1운동 편』(여성독립운동사발간위원회, 국가기록원, 2016, 27쪽),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 하』(181쪽), 『독립운동사 제9권: 학생독립운동사』(259쪽) 등의 자료에서는 주경애와 박시연은 징역 1년 6개월, 11명의 학생은 6개월을 언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난줄이나 박정수, 송명진, 김봉애 등의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와 김응수의 『기출옥증표』를 보면, 학생들은 모두 5개월로 확인되므로 수정해야 한다.

86) 박정수, 송명진의 경우 출옥일(형기 만료일)이 9월 28일로 되어 있다(『박정수신분장원지』, 『송명진신분장원지』). 『김응수명적표』, 『박연이명적표』, 『김봉애명적표』, 『김복선명적표』 참조.

87) “김응수=경찰은 뺨을 때리고 발을 비틀고 선동자를 대라고 했다. 나는 ‘내 나라를 내 어달라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며 주동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가 기절하도록 얻어 맞았다”(『국계신보』 1971. 3. 1. ‘3·1절 52돌에 되돌아보는 일신여학교 주도자들의 죄담’)

“釜山의 虐待女子 及 兒童事件, 釜山港 基督教日新女學校 教師 朱敬愛 朴時淵 外

또한 옥중에서 모시 실을 무릎에 비벼 뽑는 강제노동으로 무릎이 벗겨져 피가 나는 등 혹독한 수형생활을 감당해야 했다.

한편 만세 시위에 같이 모의하고 참가한 교사 林末伊와 학생 林望伊(임말이의 동생)는 체포되어 신문 받는 과정에서 형부인 형사에게 모의 사실의 전모를 이야기하여 기소 면제되어 석방되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한 학생들은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후 두 사람을 학교에서 내 보내기 위해 10일간의 동맹휴학을 단행했다. 결국 학교 당국은 두 사람을 자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⁸⁸⁾ 동료와 민족을 배반하고 독립운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응징하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배일정신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다.

일신여학생의 시위 투쟁은 좌천동 부산진 공간의 재학생에 그치지 않았다. <표 1>에서 보듯이 김순이, 문복숙은 일신여학교 졸업 후 통영 면에 창설된 유치원에 보모로 취직했다. 일신여학교 2회 졸업생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는 梁聖淑과 함께 3월 13일에 통영 중앙시장 장날 시위를 감행하여 체포되었다. 양성숙은 면소되었으나, 김순이와 문복숙은 징역 6월형을 받았으며 부산형무소에서 함께 옥고를 겪었다.⁸⁹⁾

2. 4월 8일 2차 봉기와 3, 4차 시위 계획

일신여학교의 2차 만세시위는 약 한 달 후인 4월 8일에 재개되었다. 3월 11일 1차 시위가 발생하자 일제 경찰은 재빨리 휴교 조치를 단행했으며, 4월 1일이 되어서야 등교가 허용되었다.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체

女學徒 六人이 獨立示威運動에 參加했더니 다 未嫁芳年됨을 不拘하고 監獄에 囚監하고 男子보다 幾倍의 惡刑을 行했스며...”(『朝鮮總督 教會에 對한 壓迫』,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 임정편 IV』)

88) 釜山慶南3·1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79, 41~42쪽.

89) 3·1여성동지회 문화부, 『(3·1운동60주년기념)한국여성독립운동사』, 3·1여성동지회, 1980, 395~396쪽.

포된 교사와 학생들의 치욕적인 수형생활을 전해 듣고 분노했다.

4월 8일 저녁 8시 30분경 50여 명의 학생들은 다시 학교 앞 신작로에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했으며, 주모자 5명이 체포되었다.⁹⁰⁾ 일제 경찰은 같은 날 동래군 기장읍과 좌천동(동래군)⁹¹⁾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기장은 ‘약 70명 소요’, 좌천동은 ‘약 5백 명 소요’라고 한 반면, 장소를 ‘부산진’이라고 표기한 본 시위에 대해서는 ‘50명 내외의 여학생 소요’라고 하여 일신학교라고 표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주체를 일신여학교라고 분명하게 규정했다.⁹²⁾ 더구나 좌천동 시위는 같은 부산진 공간이고 거의 동일한 시간대였는데도, 부산진 시위를 분리하여 ‘50명 내외의 여학생’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매일신보에서는 이날 만세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팔일 오후 팔시부터 동 구시까지 부산 부산진에서 약 이백 명 군중이 두 번째 니러나서 만세를 불러서 시위운동을 행하였는데 처음에는 당지 공립보통학교 졸업생과 현재로 수업하는 학생이 시작함에 그를 따라 군중은 일시에 산이 울리도록 만세를 부른단 급보를 접한즉 부산경찰서에서는 자동차 사오대를 모라 급히 현장에 출장하여 즉시 해산식인바 다행이 폭행은 없었고 주모자 다섯 사람을 테포 하얏더라(부산)”⁹³⁾

이 기사에 의하면 부산진에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2백 명 군중이

90) 『高第10876號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43報)』(1919.4.10),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7책.

91) 『朝特報第10號 騷擾事件ニ關スル狀況(自4月6日至4月15日)』(1919.4.16.),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7책, 朝鮮軍參謀部. 원문대로그임.

92) 『朝特報第10號 騷擾事件ニ關スル狀況(自4月6日至4月15日)』(1919.4.16.),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7책, 朝鮮軍參謀部.

93) 『매일신보』 1919. 4. 12. ‘騷擾事件의 後報: 釜山鎮 다섯 명 또 테포’.

두 번째 만세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주체는 부산진공립보통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이었다. 이 만세운동은 앞의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에서 서술한 이날 전개된 3건의 만세운동 가운데 약 5백 명 규모로 추산한 ‘좌천동’ 시위를 서술한 것이다.

<표 2> 4월 8일 부산진 만세시위로 체포된 인물들

	인명	생몰	본적(주소)	형량	직업, 신분	이후 경력, 활동
1	金愛蓮 (1992)	1902.8 ~ 1996.11	부산 좌천 163(同)	징역 6월	부산진 공립보통 학교 학생	부산진시위, 1919.8.25. 가출옥 (10월 31일 형기 종료)
2	李甲伊 (男) (1990)	1897.12. ~ 1929.10	부산 좌천 24(同)	징역 10월	同	조선방직(주) 전기공. 작업 중 感電死(작업 방해 목적으로 고압선 절단 중 일본인 주임에 의해 감전살해당함)
3	金(全?) 浩鳳(男)				同	

출처: 『독립유공자공훈록』; 『工夫感電卽死』, 『중외일보』 1929년 10월 29일; 『職工感電卽死 人夫들의 소동』, 『매일신보』 1929년 10월 29일.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부산진과 좌천동이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시위운동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측에서는 시위 주체에 따라 부산진(일신여학생)과 좌천동(부산진공립보통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분류했는데, 현장을 보도한 신문에서는 합쳐서 ‘부산진 시위’로 기사화되었던 것이다.⁹⁴⁾

94) 4월 3일 오후 2시 30분경에도 부산진(좌천동)에서 백여 명(수백 명)의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그 주체는 부산진공립보통학교 교사 洪在文, 학생 裴守元 등으로 주로 지역 기독교도를 규합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이들은 『조선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꽂아두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경찰에서는 주모자 이하 10명을 검거했다(日本陸軍省 編, 『大正8年4月4日 高第9833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37報)』,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7. 『매일신보』 1919. 4. 7. 『騷擾事件의 後報: 부산 주모자를 테포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2차 시위는, <표 2>에서 보듯이 부산진공립보통학교 졸업생 金愛蓮과 李甲伊, 田浩奉 등이 체포된 기록만 남아 있어, 그동안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 1936년에 작성된 『고등경찰관계적록』(1919~1935, 경상남도경찰부)에서도 4월 8일 일신여학교의 2차 시위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헌병대와 경찰서의 만세 시위에 관한 현장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한 일차 자료인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에 의거해볼 때, 4월 8일 일신여학교의 독자적인 시위가 실행되었음은 분명하다. 이 2차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4월 8일 시위의 준비 과정에 대해 알려주는 운동주체측 자료는 부산진보통학교 졸업생 金愛蓮의 회고이다. 김애련은 당시 18세(1902년생)로 이날 시위로 체포되어 4월 14일 보안법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되었고, 4월 30일 재판에서 징역 6월형으로 확정되었다. 8월 25일 ‘出學’이란 사유로 형기 만료(10월 31일) 보다 두 달 앞서 가출옥 석방되었다.⁹⁵⁾ 당시 그는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가사를 돌보는 상태(경찰에서는 ‘無職’으로 표기)였는데 일신여학교 학생들을 ‘출학’으로 가석방한 전례에 의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4월 8일 시위의 준비와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는 일신여학교 교사 申英子였다.⁹⁶⁾ 그는 부산진일신여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김애련의 집(좌천동 163번지)에서 하숙했다. 김애련의 집에는 부산진보통학교 2회, 3회 졸업생들이 모여서 그로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와 국내외 정세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양정숙 출신 부산진보통학교 졸

釜山鎮 勳명을 검색'. 釜山慶南3·1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앞의 책, 57쪽).

95) 『金愛蓮 名籍表』 참조.

96) 김애련의 인터뷰를 실은 『부산문화』 2권 2호, 1985년 3·4월호에서는 ‘신영자’라고 표기했으나, 『제15절 個人略傳-金愛蓮』, 『부산경남삼일운동사』, 99쪽에서는 辛明子로 표기했는데, ‘신영자’가 정확한 것 같다. 申英子是 진명여학교를 1915년 3월 26일 5회로 졸업했다(편찬위원회, 『進明七十五年史』, 진명여자중고등학교, 1980, 375쪽)

업생으로 의기투합하는 서계자, 김양술, 김갑순 등 7명이 신영자 교사로부터 지도받으며 태극기 제작 등의 준비를 진행했다.⁹⁷⁾

이로 보아 신영자 교사는 하숙집 딸인 김애련을 매개로 부산진보통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의 만세운동도 지도하는 한편,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시위운동을 지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애련은 체포 후 일주일간 배후와 동료를 대라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일을 열지 않음으로써 변절하지 말자는 약속을 지키고 피신한 동료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가 1차 시위를 주도한 일신여학생보다 많은 형량(8개월 구형, 6개월 언도)을 받은 데에는 침묵으로 일제 경찰에 버텼고 또한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으로 나이가 많았던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4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좌천정에서 金兌坤·朴聖海·崔益守 등 16명이 시위를 공모했는데, 이때 동래고보, 부산제2상업학교와 함께 일신여학교 학생들도 참가했다. 그러나 경찰에 탐지되어 거사하지는 못했다.⁹⁸⁾ 이렇게 볼 때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4월 8일 2차 시위 이후에도 만세꾼처럼 만세 시위를 지속했음을 알 수 있다.

IV. 여성단체 설립과 계몽운동

앞에서 일신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3월 11일 만세시위를 필두로 4월 8일 전개된 좌천동·부산진 만세 시위운동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으며, 또한 4월 9일과 10일 시위도 계획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체포되어 옥고를 겪었다.

97) 류승렬, 「만세 할머니 김애련」, 『부산문화』 2권 2호(통권 3호), 1985년 3·4월호, 227~229쪽.

98) 『高等警察關係摘錄』 6쪽. 釜山慶南3·1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앞의 책, 1979, 58쪽.

출옥 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에는 경찰서의 허가를 얻어야 할 정도로 감시가 심하였다. 이들은 유학을 가거나⁹⁹⁾ 결혼하거나 각기 다른 경로를 걸었다. 일부는 사회적 활동과 취업을 시도했는데, 경찰의 통제와 수형 이력으로 쉽지 않았다. 김응수는 6개월을 더 공부하고 졸업 후 보통학교 교원을 지원했으나 보안법 위반 경력으로 인해 할 수 없었다. 유치원 보모강습소와 야학 선생을 하다 이마저 경찰의 등쌀에 못이겨 사표를 내야 했다.¹⁰⁰⁾ 김난줄은 유치원 보모로 있다가 경찰의 감시를 피해 거창으로 갔는데 여기에서도 경찰이 따라다녔다.¹⁰¹⁾

이들 중 일부는 지역의 문화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3·1운동은 일제가 무단통치 방침을 포기하고 비정치적인 언론·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문화통치로 선회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문화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청년단체들이 조직되었다.¹⁰²⁾

1921년 6월 13일 60여 명의 여성이 부산진구락부에서 부산여자청년회를 창립했다.¹⁰³⁾ 부산여자청년회는 창립대회 장소가 釜山鎮俱樂部였고 아울러 그 인적 기반 역시 부산진 일신여학교에 두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부산여자청년회의 지역적 기반은 부산진이었고 주도층은 일신여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이었다. 실제 부산여자청년회는 때로 부산진여자청년회로 불리기도 했다. 『조선일보』 1921년 8월 27일자 기사에

99) 예를 들어 교사 주경애와 마산 시위를 주도했던 박순천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100) 記者 金應守, 「三·一運動感想談」, 『八十年誌』, 195~196쪽. 釜山慶南3·1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앞의 책, 1979, 102~104쪽. 『국제신보』 1971. 3. 1. ‘3·1節 52돌에 되돌아보는 日新女學校 주모자들의 座談’.

101) 『국제신보』 1971. 3. 1. ‘3·1節 52돌에 되돌아보는 日新女學校 주모자들의 座談’.

102) 부산지역의 문화계몽운동과 청년단체에 대해서는 김승, 「한말 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2000. 이귀원, 「1920년대 전반기 부산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전개와 노동자계급의 항쟁」,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1』, 여강, 1993 참조

103) 자세한 활동 내용은 이송희, 「부산지역 신지역층 여성들의 등장과 단체활동」, 『여성과 역사』 3, 2005, 93~96쪽 참조

서는 부산여자청년회의 창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부산진 조선인 청년여자의 유지자(釜山鎭朝鮮人青年女子有志者) 간에는 이번에 조선인 여자의 교육을 보급시키는 동시에 의견 교환 과 기타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자청년회를 설립해야 文藝, 社交, 衛生, 야학 각부를 설치하고…야학부는 좌천동(佐川洞)에 두고 이개년으로써 수업케 한다더라…”

이 기사를 보면 부산진의 조선인 청년여자 有志들에 의해 부산여자 청년회가 설립되었고 부서로 문예·사교·위생·야학부를 두었으며 야학 은 좌천동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산여자청년회의 조직, 운영자 가 부산진의 청년여성이고 공간적 활동기반은 주로 부산진인 것이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에서도 ‘釜山鎭女子青年會’라고 지칭했 다.¹⁰⁴⁾ 부산여자청년회에서 5월에 개최하는 운동회도 ‘부산진’에서 거 행하는 것으로 보아 부산여자청년회의 지역기반이 부산진(좌천동)임을 말해준다.¹⁰⁵⁾

부산여자청년회는 1년이 지난 1922년 6월경 회원수가 2백여 명에 이르렀다. 부산진여자야학교를 경영했는데 학생수가 백여 명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다.¹⁰⁶⁾

104) 『동아일보』 1926. 9. 27. ‘釜山女夜學卒業式’. 『동아일보』 1926. 10. 19. ‘釜山秋季運動會’ 부산여자청년회와 부산진여자청년회를 통용하여 지칭했음은 1929년 5월 경 경북기근구제회 결성 시 부산진의 각 단체들 즉 부산진청년회, 부산체육회, 부산진기독교청년회, 釜山研樂會, 釜山丁卯團, 釜山鎭斥候隊, 朝紡喜樂會, 부산진교육회, 그리고 부산진여자청년회가 아니라 부산여자청년회를 열거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105) 『조선일보』 1923. 5. 17. ‘女子青年會運動會’.

106) 『동아일보』 1922. 6. 15. ‘釜山女青年紀念’ 여자야학은 일신여학교를 빌려 교수했는데 1924년에는 학생수가 218명이 달했다(『시대일보』 1924. 10. 6. ‘여자청년회 야학’).

<부표 1>을 보면 부산여자청년회의 임원진은 초대 회장 양한나(양귀염, 일신여학교 1회), 부회장 김기숙(3회), 2대 회장 박덕술(1회), 문예부 문복숙(5회)과 같이 대개 일신여학교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11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옥고를 겪었던 이명시와 김난줄은 1922년 6월 10일 열린 창립1주년기념식에서 並唱을 하고 임원진에서 위생부를 맡아 활동했다.¹⁰⁷⁾ 또한 3·11 시위 주도자인 박정수도 1921년 11월 26일 부산여자청년회관에서 <사회의 발전은 재산이나 노동이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노동’편에서 토론을 전개한 것으로 보아 간부는 아니었지만 일반회원으로 적극적 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¹⁰⁸⁾ 이로 보아 3·11 만세시위 주도자로서 부산여자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이는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대 문예부장이자 1923년 4회 정기총회에서 서기로 선출된 문복숙은 앞에서 보았듯이 일신여학교 출신으로 통영 만세시위를 주도한 인물이었다. 사교부장 여운영은 서울 정신여학교 출신으로 부산진교회 세례교인이자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다.¹⁰⁹⁾ 그는 1921년 12월 말 김기숙의 뒤를 이어 부산여자청년회 회장이 되었다.¹¹⁰⁾ 이후 근우회 창립 시 임시의장이었으며 정치연구부에서 활동했고, 1929년에는 집행 위원장이었다.

1922년 2월 창립된 부산중앙여자청년회는 초량지역 단체였다. 그러나 초대회장 김한순과 서기 김경순이 당시 일신여학교 현직교사(1920년 3월 이후 재직)란 점에서 중앙여자청년회의 설립에도 일신여학교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07) 『동아일보』 1922. 6. 15. ‘釜山女青年會紀念’.

108) 『동아일보』 1921. 12. 3. ‘부산여자청년회’.

109) 김영삼, 『眞信七十五年史』, 1962, 256쪽. 임지원, 『한말~일제시기 부산지역 기독교인들의 계층 구성과 지역 내 활동-부산진교회와 초량교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44, 2009. 여운영은 1919년 3월 11회로 졸업했다.

110) 『동아일보』 1922. 1. 4. ‘부산여자청년총회’.

총무 이금옥이 동시기에 부산여자청년회의 재무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인접한 두 지역의 여성단체는 인적으로 중첩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여자청년회의 여운영이 부산진교회 세례교인이고, 중앙여자청년회의 최명술과 김경순이 부산진교회 학습교인과 세례교인인 것으로 보아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의 인맥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단체의 사업이나 행사가 열린 주요 공간 중 하나가 부산진교회였기 때문이다.¹¹¹⁾

부산여자청년회와 부산중앙여자청년회의 설립과 운영은 3·11 독립만세시위 주도자를 비롯하여 일신여학교 현직 교사와 재학생 및 졸업생 이외에 유학 후 귀향한 서울 여학교 출신 엘리트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V. 맺음말

개항 후 매축, 착평 공사에 의해 부산항은 근대적 지리경관으로의 변화가 진행되었으나, 조선인 사회공간의 중심은 부산진과 초량이었다. 한말 부산지역에서는 양정부인회, 초량부인회, 구포부인회와 같은 지역별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여자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부산에 발을 디딘 선교사들은 일본 전관거류지 밖 조선인 주거공간에 선교의 뿌리를 내렸다. “교회 옆에 학교”라는 개신교의 개척자적 의지를 반영하여 교회가 설립되면 대개 부

111) 대표적인 예로 1921년 8월과 1926년 8월 부산여자청년회 후원으로 동경여자유학생 강연회와 조선여자교육회 순회강연이 모두 부산진교회에서 열렸다(『매일신보』 1921. 8. 14. ‘여자유학생강연’, 『매일신보』 1926. 8. 14. ‘여자유학생강연’, 『동아일보』 1921. 9. 4. ‘女子巡講團釜山着’).

설학교가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호주 여선교사들이 설립한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부산지역 여자교육기관의 시초였다.

조선인이 설립한 부산지역 최초의 여자교육기관은 1908년 5월 부산진 양정부인회의 후원으로 개설된 養貞塾이었다. 한말 부산지역에는 양정부인회, 초량부인회, 구포부인회와 같은 지역별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여자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대한제국의 쇠망과 일제의 침탈이란 상황에서 일신여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여성 교육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주력했으며, 이에 학생들의 救國心은 고조되어 있었다.

일신여학교가 위치한 부산진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는 매우 반일적이었다. 경상도지역에서 기독교 그 중에서도 장로교파가 가장 강한 곳인 부산진의 외국인선교사와 그들과 접촉하는 조선인의 언행은 철저한 사찰대상이었다. 학교 경영자인 외국인 교장과 선교사들의 배일적 분위기와 함께 비밀결사운동에 참여한 조선인 교사의 교육은 학생들의 반일의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일신여학교의 이러한 반일적 분위기와 민족교육은 3·1운동의 자양분으로 축적되었다.

3월 11일 부산진(좌천동)에서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외친 만세는 부산·경남지역 최초의 함성이었다. 만세시위로 체포된 이는 약 30명이었는데, 교사 2명은 1년 6개월, 여학생 10명은 5개월, 그리고 일반인 남자 1명은 8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한 달 간의 휴교 후 등교하자, 곧 인근 주민들과 함께 4월 8일 2차 시위를 전개했다. 경찰에 탐지되어 비록 거사하지는 못했지만, 4월 9일과 10일에도 동래고보, 부산제2상업학교와 함께 좌천정 시위를 계획했다.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만세꾼처럼 3월 11일 이후에도 시위를 지속했던 것이다. 그동안 일신여학교 만세 운동에 대해 ‘부산경남지역에서 최초’라는 점만 강조해왔다. 그러나 3·11시위 이후 4월 8일 2차시위를 거행하고 3, 4차 시위를 계속

시도했다는 지속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11 시위참가자를 비롯해 일신여학교 출신 여학생들은 지역의 문화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21년 6월 13일 창립된 부산여자청년회의 지역적 기반은 부산진이었고 인적 기반은 일신여학교였다. 이에 부산여자청년회는 때로 부산진여자청년회로 불리기도 했다. 3·11 시위를 주도하여 옥고를 겪었던 이명시와 김난줄, 박정수 등은 부산여자청년회의 간부 혹은 회원으로 활동했다. 3·13 통영 시위를 주도했던 문복숙도 문예부장으로 활동했다.

일신여학교 졸업생들은 주경애, 김난줄, 문복숙, 송명진 등과 같이 당시 대개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했고 결혼 후에도 중류 이상 수준의 생활을 영위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구의 부인이란 사회적 규정으로 인해 결혼한 이들은 남편의 정치적 경로에 묻혀 여성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았으며 혹은 남편의 정치 활동에 동반되기도 했다. 3·11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일신여학교 교사와 학생은 이후 친일 행적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다.¹¹²⁾

112) 그러나 주경애는 애국금차회 회원이란 흠결사항으로 인해 포상받지 못했다. 주경애는 남편 崔斗淵이 조선총독부 고등문관이었기 때문에, 일제 침략전쟁에 헌납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7년 친일명망가들의 부인들로 조직된 愛國金釵會 회원이었다. 김반수의 남편 許庸은 공립보통학교 교사였는데, 대구에서 재직 시 성추행 교사로 당시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인물이었다. 교사직에서 면직된 이후 오랫동안 군서기, 면서기로 일했다. 김난줄의 남편 宋相錫은 1920년대에 경남 통영경찰서, 고성경찰서 고등계 순사였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총무로 친일 목사였다. 때문에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부산진일신여학교(고등과)졸업생명단』, 『八十年誌』, 32쪽. 『동아일보』 1937. 8. 21. ‘愛國金釵會員 金品多數獻出獻納’. 『매일신보』 1927. 8. 29. ‘許庸罪狀續露’. 『동아일보』 1932. 5. 19. ‘節制會懸賞當選’. 『동아일보』 1934. 6. 17. ‘일요강화: 중앙교회’. 『민주중보』 1949. 8. 12. ‘道反民特委消息, 兩牧師에 出頭令’).

<부표 1> 부산여자청년회 임원진

	직책	인명(나이)	학력	직업, 신분, 기타
1921.6.13 창립기	회장	梁漢拿 (梁貴艷)	일신1회 (1913년 졸)	일신여학교 기독교청년회 총무(1923), 양성봉의 누나
	부회장	金基淑	일신 3회 졸	일신여학교 교사
	총무	吳大連		
	재무	李今玉		
	同	孔武年		
	書記	朴明愛		
	同	崔守連		
	간사	王明龍		
	문예부장	全梅慈		
	사교부장	呂運英	貞信 11회 졸 (1919)	부산진교회 세례교인, 주일학교 교사, 부산여자청년회 회장(1922.12.26), 근우회 창립시 임시의장·정치연구부(1928)·집 행위원장(1929)
위생부장	柳昌信			
1922.6.10	회장	朴德述	일신 1회졸	일신 교사(1919.10) ¹¹³⁾ , 김해기독교청년회(1921), 夫: 梁在寅
	부회장	姜世玉		
	총무	洪桂華		
	문예부	文福淑	일신 5회 졸	夫: 梁聖奉
	同	吳大淵		
	사교부	金聖道		
	同	朴鳳龍		
	위생부	李明施	일신 10회 졸	3·11 만세시위 주도
	同	金蘭苗	일신 9회 졸	3·11 만세시위 주도
	회계	禹奉淑		
	同	孔武年		
	서기	徐鳳善		
	同	金鼎		

	간사	尹德眞		
	同	辛鼎順		
1923.6.16 4회 정기총회	회장	박덕술		일신 교사(1919.10), 김해기독교청년회(1921)
	부회장	강세옥		
	총무	吳大淵		
	문예부	여운영	貞信 11회 졸 (1919)	부산진교회 세례교인, 주일학교 교사, 부산여자청년회 회장(1922.12.26), 근우회 창립 시 임시의장·정치연구부(1928)·집 행위원장(1929)
	同	崔福述		
	사교부	宋命善		
	同	서봉선		
	재무부	禹奉淑		
	同	金德伊		
	위생부	尹德辰		
	同	김난줄	일신 9회 졸	3·11 만세시위 주도
	서기	문복숙	일신 5회 졸	
	同	兪玉蓮		
	간사	홍계화		
	同	金小祚		1947년 수정동 거주
同	趙明順			
同	辛允元			

자료: 『동아일보』 1921. 6. 17. ‘부산여자청년회’. 『매일신보』 1921. 10. 14. ‘김해청년전도대’. 『동아일보』 1922. 1. 4. ‘부산여자청년총회’. 『동아일보』 1922. 6. 15. ‘釜山女青年會紀念’. 『동아일보』 1923. 6. 22. ‘부산여자청년총회’. 이송희, 『양한나(梁漢拿 1893~1976)의 삶과 활동에 관한 一考察』, 『여성연구논집』 13, 2002.

113) 日本陸軍省 편, 『大正8年 10月 14日 高警第29173號 地方民情彙報』,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4.

<부표 2> 부산중앙여자청년회 임원진

	직책	인명(나이)	학력	직업, 신분, 기타
1922.2 창립기	회장	金漢淳		일신여학교 교사(1920.3~)
	부회장	孔懋年?	일신3회 졸	일신여학교 교사
	총무	李今玉		
	재무	崔南伊		동양선교회 고성군 주양리 성결교회 포교담임자(1934) 선정
	同	李富鶴		
	書記	崔命(今)述	일신12회 졸	부산진교회 학습교인(1921), 최금술: 부산근우회(1928), 夫: 李末守
	同	金敬順	정신 여학교 7회졸업 (1915)	부산진교회 세례교인(1911), 일신 교사(1920.3~), 義友團(1922) 사건으로 검거
	간사	李世?		
	同	尹仙伊		
	同	李芝宇		
	同	李鳳順		
	同	文德珍		
	고문	鄭箕斗		廣信社 설립(1909), 부산증권(주) 감사(1925), 부산상공회의소 특별의원(1935), 동아일보 부산지국 고문(1926~1930)
	同	吳澧植		부산제1공립상업학교 강사축탁(1925), 三山자동차(주) 감사(1923~1929)
同	金世煥			
同	梁道淵			
1925.5.7	회장	李今玉		
	부회장	崔命述		
	총무	李富鶴		
	서기	李碩成		

		朴福命		
	재무	尹仙伊		
		李圭東		
	간사	李芝宇 외7인		
1925.8	회장	李惠卿		
	부회장	李順星		
	총무	尹仙景		
	재무	尹仙伊		
	同	李圭東		
	서기	朴福命		
	간사	이지우		
	同	李奉熙		
	同	張今連외4인		
	고문	崔泰弘외1인		

출처: 『동아일보』 1922. 3. 1. ‘여자청년회창립회’. 『동아일보』 1922. 4. 26. ‘義友團員大檢舉’. 『동아일보』 1925. 5. 9. ‘釜山女青年總會’. 『동아일보』 1925. 8. 16. ‘부산여자청년수혜구제 임원개선’. 『八十年誌』 32쪽, 279~280쪽.

| 참고문헌 |

1. 자료

-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朝鮮時報』 『조선일보』 『동아일보』 『釜山日報』 『매일신보』 『시대일보』 『국제신보』 『신한민보』
- 윤소영 편, 『日本新聞韓國獨立運動記事集: 3·1운동편 大阪朝日新聞』,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相澤仁助, 『釜山港勢一斑』, 日韓昌文社, 1905.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 『韓國近代史資料集成』
- 『統監府文書』
-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原書房, 1967.
- 『朝鮮3·1獨立騷擾事件』, 조선헌병대사령부.
-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7冊, 朝鮮軍參謀部.
-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 임정편 IV』, 국사편찬위원회, 1974.
- 『高等警察關係摘錄 1919-1935年』, 경상남도경찰부, 1936.
- 『名籍表』(김봉애, 김응수, 김복선, 박연이, 김애련).
- 『身分帳指紋原紙』(김난출, 박정수, 송명진, 김봉애, 이명시, 김복선, 박연이).
- 『假出獄證票』(김응수).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第6輯: 3·1運動史資料集』, 1973.
- 『3.1運動時被殺者名簿』, 국가기록원 소장, 1953.
- E. A. Kerr·G. Anderson 공저, 이원호·김성혜 공역, 『호주장로선교회의 부산·경남 지역 종교 및 교육활동: 1889-1941』, 광명출판사, 1995.
- 釜山教育會, 『釜山教育五十年史』, 1927(번역본은 리진호, 『부산교육오십년사』, 지적박물관출판부, 2009)
- 『朝鮮人事興信錄』, 朝鮮新聞社, 1935.
- 表彰者名鑑刊行會, 『朝鮮總督府始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名鑑』, 조선총독부, 1935.
- 崔恩喜, 『祖國을 찾기까지: 1905-1945 韓國女性活動秘話』 中卷, 탐구당, 1973.
- 김영삼, 『貞信七十五年史』, 정신여자중고등학교, 1962.
- 동래학원팔십년지편찬위원회, 『八十年誌 1895~1975』, 학교법인동래학원, 1975.
- 『崇義八十年史』, 숭의학원, 1983.

- 편찬위원회, 『進明七十五年史』, 진명여자중고등학교, 1980.
-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8: 종교운동편』, 국사편찬위원회, 2002.
- 여성독립운동사발간위원회, 『여성독립운동사자료총서-3·1운동 편』, 국가기록원, 2016.
- 『재한선교사 보고문건』,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독립유공자공적조사>, 『독립유공자공훈록』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user/index.do>)

2. 저서 및 논문

-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대한기독교 서회, 1998.
- 김승태·박혜진 편, 『내한선교사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 김진호·박이준·박철규, 『국내 3·1운동Ⅱ-남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하), 1983.
-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사』, 정음사, 1975.
- _____, 『여성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3·1여성동지회 문화부 편, 『(3·1운동60주년기념)한국여성독립운동사』,三一同志會, 1980.
- 釜山慶南3·1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釜山慶南三一運動史』,三一同志會, 1979.
- 李龍洛 編著, 『三·一運動實錄』, 도서출판 금정, 1994.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소명출판, 2013.
-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권수호운동 Ⅱ』, 국사편찬위원회, 1987.
- 稻葉繼雄, 『旧韓末「日語學校」の研究』,九州大學出版會, 1997.
- 강선미, 「조선 과전 여선교사와 (기독교)여성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 승, 「한말 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2000.
- _____,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 『文化傳統論集』 14, 2007.
- 김승태, 「한말 일제침략기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1894~1910)」, 『한국기독교와 역사』 6, 1997.
- 김정희, 「日帝下 東萊地域 女性獨立運動에 關한 小考」, 『문화전통논집』 4, 1996.

- 김형목, 『구한말 학교사연구 기초자료-부산 개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3-3, 2011.
- 魯仁華, 『한말 개화자강파의 여성교육관』, 『한국학보』 8-2(통권 27호), 1982.
- 오미일, 『식민도시 부산의 주거공간 배치와 산동네의 時空間性』,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소명출판, 2014.
- 이귀원, 『1920년대 전반기 부산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전개와 노동자계급의 항쟁』,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1, 여강, 1993.
-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전래사』, 글마당, 2001.
- 이송희, 『양한나(梁漢拿 1893~1976)의 삶과 활동에 관한 一考察』, 『여성연구논집』 13, 2002.
- _____,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16,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 _____, 『부산지역 신지역층 여성들의 등장과 단체활동』, 『여성과 역사』 3, 2005.
- 임지원, 『한말~일제시기 부산지역 기독교인들의 계층 구성과 지역 내 활동-부산진 교회와 초량교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44, 2009.
- 임희국, 『모성적 생명의 눈으로 한국장로교회 역사 읽기-여전도회』, 『한국기독교공보』 2013년 9월 27일.

투고일 : 2018. 11. 12. 심사완료일 : 2018. 12. 06. 게재확정일 : 2018. 12. 14.

| Abstract |

3·11 Hurray Demonstration of Busan Jin Ilshin Women's School and Women's Movement

Oh, Mi-II

In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women were at the forefront of demonstrations and were responsible for the printing and dissemination of diaries and confidential document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female activism as the organizational movement body in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was Busanjin Ilshin Women's School demonstration .

The 3.11 hurray demonstration of Busanjin Ilshin Women's School was the first long-awaited act of independence movement in Busan, Gyeongsangnam-do and played a major role in spreading protests like the wave of concentric circles. Nevertheless, even the basic facts about life after death have not been grasped. This article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3.11 hurray demonstration at Ilshin Women's School.

The reason why girls from Ilsin Girls' School and public ordinary schools in Busan participated in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was because of the diversity of education by missionaries, Japanese, local opponent and women's associations. Among them, the female students who witnessed the world situation and received the national education had the usual anti-Japanese attitudes and emotions, and the women would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meantime, we have generally emphasized the fact that 3·11 demonstration of Ilshin Women's School is the first in the Busan Gyeongnam area. Howeve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movement' in that They continued to carry out the third and fourth protests following the second protest.

The students of Ilshin Women's School, including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3·11 demonstrations, actively participated in local cultural enlightenment campaigns. Founded in June 1921, the Busan Women's Youth Association's regional base was Busanjin and its human base was Ilshin Women's School.

Keyword: Busan Jin Ilshin Women's School, 3·11 demonstration, Women's movement, Yangjeongsug(養貞塾), Busan Women's Youth Association, Busan Central Women's Youth Association